

한낮의 설렘 담은 무대... "11시에 만나요"

아침 또는 오전중이라는 뜻 프랑스어 '마탱(matin)'에서 유래한 '마티네(Matinee)'는 오전 또는 이른 낮 시간대에 열리는 공연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공연들보다 비교적 짧은 러닝타임 안에 낮 시간이 자유롭게 저녁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 아동, 주부, 노인 등의 관객층을 타겟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 활용된다. 광주에서도 6월에만 3차례의 낮 공연이 열려 주민들의 일상에 선물 같은 음악 휴식을 전한다.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Ⅲ 마티네 콘서트 '어울림'이 6월 11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오티움 콘서트'의 두 번째 공연 '더블베이스(Double Bass)'가 6월 13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2025 GAC 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명작시리즈3 달과 6펜스' 공연이 6월 24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 광주시립합창단 마티네콘서트 '어울림'

광주시립합창단 마티네 콘서트 '어울림'은 지난해 'Music in Drama & Movie'를 주제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인기 시리즈로 올해는 '함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공연장 분위기를 벗어나 소리가 풍성하게 울리는 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라는 특별한 공간을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임창은 지휘자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유럽과 아프리카, 미주 등 다양한 문화권의 합창곡들을 여행하듯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낭만적인 정취를 담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미국의 서정적 민요 'Shenandoah' 아카펠라 편곡, 폴 밀러의 'Peace' 등을 선보인다. 또 영국의 '런던 다리', 미국의 '오 수재너', 우리나라의 '아리랑' 등 세계 각국의 친숙한 민요들을 흥겹게 연결한 메들리를 감상할 수 있다.

임창은 지휘자는 "관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함창이 가진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세계 각국의 음악을 여행하듯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티켓은 오픈 3일 만에 전석 매진된 상태다. 취소료 발생 시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추가 예매가 가능하다.

●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Double Bass'
광주시향의 대표 기획공연인 오티움 콘서트



광주시립합창단의 지난해 어울림 공연. 올해는 '함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시립합창단·시향·GAC 기획공연 함창·더블베이스·명작시리즈까지 여유로운 오전 감동의 음악 선물

올해 '악기'를 주제로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악기를 집중 조명하는데 이번 무대는 더블베이스를 내세웠다. 지휘와 해설은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연이 맡고, 협연자로는 더블베이스의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음색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프로그램은 쿠세비츠키의 '더블베이스 협주곡',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코끼리', 그리고 말러 교향곡 제1번 중 3악장과 2악장으로 꾸며진다.

협연을 맡은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제는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주목받아 온 연주자다.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통해 더블베이스의 표현 영역을 확장해 온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악기가 지닌 깊이 있는 울림과 매력적인 음색을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더블베이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로, 한층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향의 오티움 콘서트2 'Double Bass'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관람은 초등학교생부터 관람할 수 있다.

● 2025 GAC 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명작시리즈 세 번째 무대는 서머셋 몸의 대표작 '달과 6펜스'를 주제로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폴 고갱의 대표작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와 '달과 6펜스'의 세계를 음악과 함께 조명한다. 문학 서사, 미술의 상징, 음악적 흐름을 하나로 엮는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가 해설을 맡아, 작품과 예술가의 내면을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음악은 '달과 6펜스' 속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다채로운 클래식 작품들이다. 차이콥스키의 현악사중주 1번 D장조 2악장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A장조 2악장과 브람스의 클라리넷 삼중주 a단조 1악장이 이어지며 내면의 고요한 울림을 전한다. 이후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과 브람스 피아노 5중주 1단조 3악장을 통해 감정의 고조와 강렬한 예술적 열망을 표현하며 소설 속 인물의 내면 여정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연주는 리수스 과르넷이 맡는다. 이헤니(제1바이올린), 유지은(제2바이올린), 장은경(비올라), 마유경(첼로)으로 구성된 리수스 과르넷은 2021 미국 피쉬오프 챔버뮤직콩쿠르에서 한국팀 최초로 전 부문 대상(Grand Prize)을 수상한 실내악 그룹이다. 피아니스트 김소영과 클라리넷 연주자 김우연이 함께 협연해 풍성한 음악적 해석을 더해줄 예정이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관람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공연시간 80분,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가.

최진화 기자

ACC, 내달 5일 반려견 동반 문화나들이 행사

이동시 개별 이동장·유모차 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6월 5일 ACC 복합전시 2·5·6관에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관하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한 '반려동물 동반 나들이 특별주간'의 본격 운영을 앞둔 사전 행사다.

이날 반려견과 함께 관람이 가능한 ACC 장소는 '애호가 편지' 전시가 열리고 있는 복합전시 2관을 비롯해 '이이남의 산수극장'이 진행

중인 복합전시5관,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전시가 한창인 복합전시6관 등 3곳이다. 그동안 ACC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청각장애인의 보청견이 동반 방문한 적은 있지만 반려동물의 출입은 금지돼 있었다.

이번 전시 관람은 대형견이나 맹견, 공격성이거나 문제 행동이 있는 개를 제외한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시 개별 이동장이나 개 유모차를 이용해야 하며, 행사 당일 ACC에는 반려견 관련 용품이 비치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모두 무료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최진화 기자

남도국악원, 내달 5일 제1회 국악의 날 기념공연

진도무형유산전수관 마당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6월 5일 오후 4시 진도무형유산전수관 마당에서 제1회 국악의 날 기념공연을 개최한다.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유산보존회가 함께 '굿이 Good이여!'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공연은 지역 전통예술인들과 함께 국악의 날을 기

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진도다시래기보존회, 강송대(남도잡가 보유자), 강강술래보존회와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 출연하며, 진도다시래기 중 거사놀이, 남도잡가 중 농부가, 강강술래 등으로 꾸며진다.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은 "처음 맞는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역 국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허백련 '기명절지 10폭 병풍'

광주시립미술관 문화도시광주전 '번안된 풍경'

이탈리아 토리노 오리엔탈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2025 문화도시광주전 '번안된 풍경'이 이탈리아 토리노 오리엔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29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해외 기관에서 지역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를 시작, 2015년부터는 '문화도시광주전'이라는 이름으로 예향 광주의 우수한 미술과 문화를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오키나와에 이어 올해는 관광과 문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이탈리아의

문화도시 토리노에서 전시를 열었다.

전시는 회화 16점, 아카이브 40여점으로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남종화 소장품과 함께 동시대 한국화까지 폭넓게 배치했다. 허백련, 허백현의 작품을 통해 고전적인 한국화의 미감을 조명하고, 이어 이선복, 허달용, 홍성민의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적 조형미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광주·전남의 동시대 한국화를 선보인다. 또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기념재단의 협조로 제공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9월 7일까지. 최진화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마을

우리동네 빵집에서 인공지능 까지!!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광주주얼리지원센터

주얼리 소공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주얼리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다양한 지원

www.gjewelry.or.kr

1F · 주얼리 전시판매장
· 주얼리 체험공간

2F · 공용장비실

3F · 교육실
· 세미나실
· 바이어 상담실
· 운영사무실

광주주얼리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1 (충정로 5가)
TEL. 062) 608-3994
FAX. 062) 608-2719

1 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정책 수립

2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

3 창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와 협업 네트워크 연결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자금상담 등

청년창업인사사업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명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일자리 공유구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광주광역시동구 창업지원센터

사무실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공간! 최고 입지, 교통 편리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 위 치 : 지하철 1호선 농성역 4번 출구
- 임대면적 : 2층 1,075㎡ (325평)
4층 740㎡ (224평)
- 건축규모 : 6층
- 문 의 처 : 010-9624-3892
062) 233-3999 내선(102)